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연맹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2

기호



사무총장 후보 **정 온**

대표약력

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초대위원장
전) 교사노동조합연맹 돌봄TF팀장
2021.10~현재 개정교육과정 총론 심의위원

위원장 후보 **유 윤 식**

대표약력

전) 충북교사노조 1,2대 위원장
전) 전국중등교사노조 제1부위원장
현)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 및 교섭국장

수석부위원장 후보 **이 보 미**

대표약력

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
현) 대구교사노동조합 대변인
현) 대구교사노동조합 3대 위원장



더함께 행복한 교육,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일 : 2023. 1. 17. (화) 10:00 ~ 18:00

당선자 공고 : 2023. 1. 17. (화) 18:30

개표일 : 2023. 1. 17. (화) 18:05

● 이 홍보물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선거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제작·배포되는 선거공보입니다.

약 력

2019.09 ~ 2022.12	충북교사노조 1,2대 위원장	현) 2020.03 ~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 및 교섭국장
2020.03 ~ 2020.09	전국중등교사노조 제1부위원장	현) 2021.09 ~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 정책2실장
2020.11 ~ 2021.07	교사노조연맹 대변인(대행)	현) 2021.09 ~	한국노총 공무원·교원포럼 부위원장
2022.03 ~ 2022.04	교육부-교원단체 협의체 연맹 대표위원	현) 2021.02 ~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집행위원 및 대의원
2020.09 ~ 2020.12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숙의단	현) 2021.09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책자문위원
2021.03 ~ 2022.04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발전특위 위원	현) 2021.09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책자문위원

연맹 1세대의 경륜, MZ세대와의 콜라보로 연맹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는 분권형 교사노조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5년간 험없이 달려왔습니다.

그간 연맹을 창립한 1세대 원로분들과 가맹노조 집행부 선생님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헌신으로 많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MZ세대 교사노조의 젊고 패기있는 후배교사들이 새로운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다며 재출마 하는 것은 명분도 약하거나 세대교체를 막는거와 같습니다. 그 일은 저와 함께 역동적인 MZ세대가 해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돌봄'과 '교권침해'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기본권'과 '타임오프'도 절실하지만 우리 연맹은 학교현안 문제해 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연맹 5년을 성찰하면서 다음 세대들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마지막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일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것은 일을 '노동'이 아닌 '놀이'로 즐기기 때문입니 다. 저는 밤낮없이 선생님들을 위해 '교사노조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동력으로 충북을 포함한 8개 지역노조 놀이터를 만들었고, '연맹 정책위원장'과 '교 육부 교섭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이제 대의원들이 일하시는 가맹노조도 '노동현장'이 아닌 '놀이터'가 될수 있도록 연맹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사사로이 이익보다 정의롭고 공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학시절엔 부당 한 국가권력에 맞서다 감옥에 다녀오기도 하고, 학교와 지역을 바꾸려다 많은 고초를 겪 기도 했습니다. 고단한 질곡의 삶이었지만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울곧게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노조 위원장과 연맹 집행부로 활동하며 교육청, 교육부, 국

회 등 다양한 교섭과 협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자산을 가맹노조 발전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 또한 가맹노조와 적극 소통 하며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체계를 가맹노조지원본부, 조직본부, 정책본부, 교권본부, 연수본부로 개편하여 연맹의 내적 성장과 외연 확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활동과 거버넌스 경험을 살려 국내외 교원 및 유관단체와 교류하며 반드시 국내 최대교원단체로의 위상을 드높이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약력

2020. 11.~ 현재 대구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전) 대구교사노동조합 2대 위원장

현) 대구교사노동조합 3대 위원장

현)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운영위원 및 산별대표자

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

현)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집행위원

젊은 교사들의 노조!

우리 교사노조연맹에 항상 따라 붙는 대표적인 수식어입니다. 저는 젊은 교사들의 노조의 젊은 30대 위원장으로 2년간 대구 교사노동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본 연맹은 처음에는 기대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맹은 20~30대 조합원이 60%를 넘고, 40대 조합원까지 합하면 90%인 곳인데, 과연 현 시스템은 이러한 조합원들에 맞는 역량이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재작년 초 연맹의 사무처장

직을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몇 가지 수락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내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고, 주어진 업무량은 저에게는 턱없이 많아 도저히 수락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 연맹에 진출할 수는 없었지만 지역에서 대구교사노조를 잘 이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구에 있으며 지켜보는 동안 연맹이 과연 젊은 간부들이나 인재를 키워낼 의지나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창립 5주년 만에 6만 조합원 달성이라는 삼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6만 조합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양은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연맹의 5년,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조합원 또는 간부를 길러내야 합니다.

저는 얼어붙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출마합니다. 연맹을 지극히 애정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노동조합이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우리 연맹이 현장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소통하고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노조는 다 똑같다.'하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가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교사노조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젊다고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역량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분야에 훌륭한 인재를 배치하여 연맹의 동력을 새롭게 창출해 낼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생활부장교사와 학교폭력 담당교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연맹 내에서 최초로 학생생활지도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던 경험과 현장 감각, 젊은 감각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사노조연맹이 어느 교원단체보다 더 기민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에 일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맹의 조합원, 대의원 여러분!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늙은 모습은 벗어던지고 강한 연맹, 새로운 연맹이 될 수 있도록 혁신과 변화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 력

2020.03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초대위원장
2020.03 ~ 2021.12.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초대위원장	전) 교사노동조합연맹 돌봄TF팀장
2020.05 ~ 2021.12.	교사노동조합연맹 돌봄TF 팀장	현) 2020.03. ~ 서울길원초등학교 교사
2021.10 ~ 2022.1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심의위원	현) 2021.10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심의위원
2020.03 ~ 2021.12.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집행위원	
2020.03 ~ 2021.12.	교사노동조합연맹 대의원 및 중앙집행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사노동조합연맹 선거 기호 2번, 사무총장에 출마한 정은입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 일하며 얻은 경험과 돌봄 정상화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첫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을 만들고,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노동조합이란, 연맹이란 뭘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받아, 그 뜻을 대리하고,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노조들의 뜻을 모아 함께하는 게 연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 정은보다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으로서 우리 3만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만든 대리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둘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업 준비를 예로 들어볼까요? 1차시 수업은 단 40분이지만 이 수업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노력은 헤아리기 어려운 만큼 많습니다. 교사는 수업 준비를 합니다. 수업 준비를 위해 참고하는 교과서 등 다양한 자료들은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학년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노동조합도 같습니다. 성명서 한 장, 보도자료 한 장을 만들기 위해 각 가맹노조의 설문조사를 참고하고, 시간을 들여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뜻이 더 잘 전달될지 고민하며 글을 쓰고 이를 검토받고 다시 고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결과만 보기보다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셋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만큼 생각이 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의견이 서로 부딪힐 때, 건강하게 토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연맹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연맹에 가맹된 노조들은 특성도, 규모도 다릅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다고 생각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노조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드리는 **우리들의 약속 !!**

현장에 기반을 두는 연맹

1 연맹 내 TF팀(위원회) 조직 활성화 및 실질적 운영 지원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아동학대법 개정 추진 및 교사보호 장치 발굴을 위한 연맹 내 교육권보호TF팀 구축 및 **교권 전문가 양성**
-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 위한 연금TF팀 조직 개편
- **돌봄 및 방과후**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방과후TF팀 개편

2 현장 연구회 활성화 및 실질적 운영 지원

-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보급을 위한 연맹 내 생활지도연구회 신설 및 지원
- **교사 본질 업무 회복**을 위한 표준업무매뉴얼 제작 및 행정업무지원센터 신설
- 급별(유,초,중등), 교과별 **정책 연구회** 구성 및 지원

가맹노조 지원만이 살 길이다

- 1 전국단위노조와의 상생을 위한 **상설위원회 협의체** 신설 및 연구예산 지원
- 2 지역단위노조 간 협력 모델인 **시도 단위 권역별(수도강원권, 충청제주권, 호남권, 영남권) 협의체** 결성 및 예산지원
- 3 **권역별 고문 변호사 1인, 노무사 1인** 별도 배치 추진
- 4 연맹 및 가맹노조 **홈페이지 및 가입자시스템** 최신화 및 현대화 지원
- 5 가맹노조별 조합원 규모에 따른 **맹비 부담 완화** 검토
- 6 가맹노조별 전임자 미확보 노조 **전임자 배치**를 위한 지원
- 7 **가맹 노조 공통 사업**(팸플렛 제작 및 홍보 물품 등) 희망 노조 수합 후 연맹 일괄 추진
- 8 가맹노조 임원 및 간부 **복지혜택 지원**(결혼 축하금, 출산 축하금, 장례 지원금 등)

선생님들께 드리는 **우리들의 약속 !!**

연맹의 힘은, 연대로부터

- 1 타임오프제 책임 완수를 위한 한국노총과의 신뢰 회복과 연대
- 2 시도교육감과의 연대를 위한 가맹노조별 네트워크 추진
- 3 연맹 내 가맹노조 간부 워크숍 정기 개최를 통한 교류 사업 확대
- 4 조합원 확대에 따른 전국 **제휴사업** 연맹 일괄 체결 및 혜택 제공
- 5 각종 수당 인상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미래를 준비하는 연맹

- 1 가맹노조 및 연맹 신규 **간부교육** 및 **노동연수** 지원
- 2 청년 간부 직무 연수비용 및 가맹노조 희망자 **연맹 인턴십 제도** 추진
- 3 연맹 내 **청년 조직실 신설** 및 한국노총 청년위원회와의 연대, 청년 조합원 참여 예산제 실시
- 4 **현행 대의원 제도 보완** 및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연맹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연맹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유윤식 후보 추천사

장대진(서울중목초) 2017년에 창립한 교사노동조합연맹. 5년 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사노조로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사노동조합연맹에 필요한 것은 지금의 위치에서 안주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서지 않고 더디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쌓아온 성취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움'.

수천명이 아닌 소수의 몇몇 교사들이 모여 교사노조운동 재도약의 노드돌을 놓으려했던 5년 전의 그 파릇파릇한 '새로움'. 그 '새로움'을 담아내고, 그 '새로움'을 펼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3대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어울리는 사람이 유윤식 후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바닷물의 3% 밖에 안 되는 소금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윤식 후보는 5만 조합원을 가진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주류는 아닐 지언정, 3%의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의 소금이 거대한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3%의 소금이 거대한 바닷물을 항상 신선하게 만들듯이...

우리 교사노동조합연맹 대의원께서 '3% 소금' 같은 유윤식 후보에게 '3%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강현(서울둔촌중) 유윤식 후보님을 생각해 보면 늘 밝은 미소와 따뜻함이 떠오릅니다. 따뜻하면서도 믿음을 주는 사람.

충북교사노조 초대위원장을 하실 때도,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을 하실 때도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교육부와외의 단체교섭을 함께 하며, 유윤식 후보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과 따뜻함, 신념에 대한 단호함과 결단력을 보았습니다. 늘 대의를 먼저 생각하며, 소외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뜻을 모았더니, 응원과 기대를 보냅니다. 더 따뜻하고 신뢰로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별을 보며 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출발할때 정했던 그 별을 잊지 않는다면, 끝내 도착하고 맙니다. 저는 기호 2번 유윤식 위원장후보를 적극 응원하며 추천합니다. 박경희(청주옥산중)

학교 교육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열정을 지닌 교사로서 학교가 학교답고 교사가 교사답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교사 권익과 학교정상화를 위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교육청과 파트너가 되어 협력하였으며, 국회 및 교육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연맹 정책위원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또한 조합원 및 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항상 소통과 협의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조활동 뿐만 아니라 인격적 측면에서도 교사들의 귀감이 되시는 분입니다. 공익을 위해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분으로 신뢰가 두터워 많은 존경을 받으시는 분으로 3대 위원장으로 기호 2번 유윤식 위원장 후보를 적극 추천합니다. 꼭 당선하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유지은(충북목도초) 유윤식후보님은 연맹 정책위원장으로 소수 교과 권익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항상 염려하며 앞장서 주셨습니다. 1,2대 충북교사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유치원, 특수, 비교과 상설위원회 조직을 모두 세웠고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 기호 2번 유윤식 후보를 제3대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은주(청주새터초) 유윤식 위원장님께서 교육정책 및 그와 관련한 교육법안과 노조법 등 전반에 걸쳐 해안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노조가 단순히 교사만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닌,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권이 교육현장에서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실현되기까지 지역위원장과 연맹의 정책위원장으로서는 맡은 바 소임을 적극적으로 해내고 있는 분입니다. 또한, 교사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타 단체 및 사측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지혜롭고 강단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당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긍정적 정책에는 아낌없는 지지를, 잘못된 정책에는 날카로운 비판을 하며 협력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무궁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사노조연맹의 위원장으로서 최고의 적임자이므로 유윤식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이충수(경남삼천포고) 유윤식후보는 연맹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적합한 인물입니다. 또한 원칙을 지키고 실사구시의 유연함을 겸비한 유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윤지혜(경기운남초병유) 따뜻한 미소로 항상 집행부 선생님들을 맞아주시던 유윤식 후보님, 교사노조연맹 제3대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유윤식 후보님은 교사노조연맹의 정책을 이끄는 정책위원장이로서, 다른 학교급에 비해 소수인 유치원 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시작을 위한 도전에 응원과 기대를 보냅니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연맹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보미 후보 추천사

정혜영(서울강남초) 저는 이보미 후보가 수 많은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조 임원이기 전에, 자기가 밭 딛고 있는 감천초등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실천가로서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학교 내에서 사소한 것 하나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미 후보는 사소한 것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학교 현장 개선을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보미 후보는 연맹의 임원이 되어서도 말보다 행동으로 변화를 이끌어 낼 사람입니다. 이보미 후보가 걸 어온 길, 그리고 걸어갈 길을 응원합니다.

김다혜(대구용지초) 누구보다 학교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학교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나 교사 한명의 힘은 작았습니다. 작다고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이보미 선생님은 노조에서 더 큰 영향력을 펼치며 선생님들이 더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만약 이보미 선생님이 더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로 간다면 전국의 모든 교사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이 더 빨리 다가 올 것이라 믿어 늘 응원합니다.

서모세(대구대청초) 이보미 선생님은 대학 시절부터 지켜봐 온 후배이자 대구교사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매사에 진심과 열정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지켜본 모습과 역량, 정무감각 등 어느 하나 모자

람이 없는 모습에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한 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의 관계에서도 무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모습에서 앞으로 더 큰 곳에서의 활약하는 모습도 충분한 기대가 됩니다.

최애숙(대구한솔초) 10여년동안 이보미 선생님이 신규교사일 때부터 옆에서 지켜본 이보미 위원장은 교직생활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 혁신에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으로 서 불철주야 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며 모든일을 솔선 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는 능력자입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에 적합한 인재라 생각하며 추천합니다.

정은숙(대구덕인초병설유치원) 이보미 선생님은 대구에서 이미 충분한 역량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의 고민에도 진심을 다하는 모습과 그 열정에 이번 선거 출마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뿐 아니라 연맹에서 역량을 발휘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혜영(대구국제고) 이보미 선생님은 영양교사들의 문제에도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로 대구 영양교사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보미 선생님은 앞으로 연맹에서도 가맹노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온 후보 추천사

김희성(서울전곡초) 안녕하세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3대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맹 역사상 처음으로 경선을 하게 되었는데 요. 선거가 즐거운 축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호 2번 후보를 추천합니다. 제가 기호 2번 정온 사무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만났던 2020년을 떠올리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초등교사들이 고통받던 그 때, 전국의 초등교사들을 하나로 집결시켰던 그 힘을 기억합니다.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들을 하나 하나 현실화시켜 노조를 만들어간 진정한 행동을 기억합니다. 후보와 함께 전국초등교사노조라는 조직을 탄생시킨 것이 제 인생에서 단연코 가장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곁에서 함께한 정온 후보는 누구보다 결단력 있었고, 모든 조합원들과 집행부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보께서 초교조라는 존재를 시작한 것이 감히, 지금의 교사노조연맹 발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온 후보가 이끄는 노조, 초교조가 그러하였듯, 그 어떤 노조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보미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명실상부 젊은 교사노조를 상징하는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풍부한 현장 업무 경험과 지역교사노조를 직접 운영해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맹에서도 가맹노조를 대표하는 역할을 충

분히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단소리보다는 쓴소리를, 언제나 ‘옳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사노조의 절대 다수인 초등교사를 대표함과 동시에 여성, 청년,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의 목소리까지 대변하는 다각도에서 리더 역할을 해낼 적임자라고 봅니다.

교사노조연맹 내 급별, 지역적 다양함을 품을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중추적 역할은 유윤식 위원장 후보께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내시리라 봅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창립 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 그 체계가 공고하지 않습니다. 경험있는 리더들의 연속성 있는 운영도 분명 그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맹과 수많은 가맹 노조들의 창립 정신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리더들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나가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1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유권자가 되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교사노조연맹 선거에서 기호 2번 후보의 약진이 분명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기호 2번 후보들이 이기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실천을 위한 선거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교사노조의 발전과 작은 변화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그 선택이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정재석(전북고창초) 유윤식 위원장 후보, 이보미 수석부위원장 후보, 정온 사무총장 후보는 생각이 젊습니다. 지금 우리는 MZ세대 노조에 맞는 리더가 필요합니다.